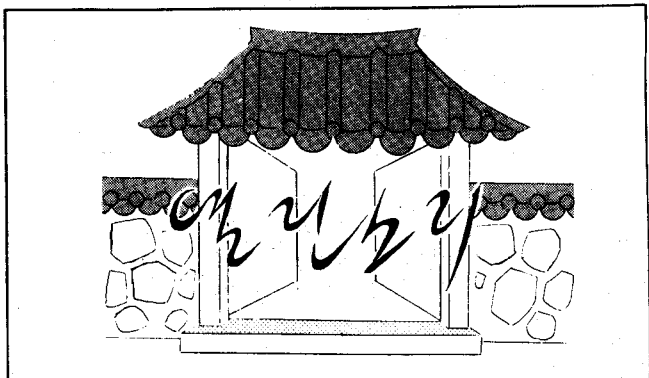




무분별한 풍물패 공연

때, 장소 분별해야

요즘 캠퍼스를 걷다보면 어느새 귀에 익숙해져 있는 풍물패의 뿔파리소리를 들을 수 있다. 대운동장의 계단에 자유스럽게 흩어져 악기를 두드리는 소리는 운동장의 넓은 공간에 울려 퍼져 온 캠퍼스의 구석구석까지 전달된다. 몇 년 전 '우리 얼 살리기'라는 대학생들의 동아리활동이 일어 대학가에서는 우리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

했다. 대운동장의 계단에 자유스럽게 흩어져 악기를 두드리는 소리는 운동장의 넓은 공간에 울려 퍼져 온 캠퍼스의 구석구석까지 전달된다. 몇 년 전 '우리 얼 살리기'라는 대학생들의 동아리활동이 일어 대학가에서는 우리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

장 승현
(기약 3)

대중평 위한 걸치레

학생편의 우선 사업 벌여야

대학종합평가를 맞이하여 학생회관이 매우 분주하다.

예전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결모습이 많이 바뀌었다. 건물에 새옷을 입히는 데 많은 시간과 돈 그리고 학우들의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정작 신경을 써야 할 곳은 그대로이다.

보이는 곳은 깨끗히 닦고 새 것으로 바꾸었지만 학생회관 그 어느 곳에서도 학생들이 쓸 더운물은 나오지 않는다.

3층 샤워실의 샤워기는 모두 찬물뿐이며 세면대에 온수 수도꼭지는 돌아가지도 않는다. 또 어떤 것은 아예 물이 나오지

않는 것도 있다. 화장실도 예외는 아니다.

날씨가 더욱 추워져 얼음이 얼면 그나마 지하수인 찬물이 약간은 따스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한 겨울 학우들의 손은 갓은 오열과 세균들로 득실거릴 것이다. 학교 건물 포장비로 많은 액수를 들여 꾸민다고 해도 학생들은 달갑지 않다.

우리들의 복지는 결이 아니라 속이다.

대중평에서 최우수학교로 선정되길 바란다면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교는 생각했으면 한다.

멋진 학교보다는 편안한 학교를 학생들은 원하기 때문이다.

우 병수
(조형 1)

승객안전 무시 유감

학교쪽에서 하차해야

등교할 때 서울에서 오는 좌석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으로서 가끔씩 버스기사님의 무책임함이 느껴질 때가 있다.

학교앞 도로가 영통지구의 건설로 확장되면서 이용하는 차량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영통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을 드나들고 있는 화물용 차량들이 과속으로 운행하고 있어 보행의 위험성이 크다. 그런데 등교길 버스기사님들은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학교 맞은편에서 하차하는 경우가 있다. 그때마다 학생 및 직원들이 학교로 가기 위해 불가피하게 무단횡단을 해야만 한다. 신호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하도가 완공되어 그쪽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나도 아침에 몇 번 무단횡단을 해야만 한다. 신호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하도가 완공되어 그쪽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물론 성인 누구에게나 휴먼할 권리는 있다. 그러나 또 누구에게나 담배 연기를 마시지 않을 권리가 있다. 어느 권리를 타인에게 피해가 된다면 철회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학교 어느 단대건물에 가든 복도는 항상 끄적자의 각축장이다. 삼삼오오 창가에 기대어, 심지어 복도를 활보하던 서 흡연한다. 여름에는 복도의 담배연기가 강의실까지 침입(?)한다. 날씨가 쌀쌀해져 창문을 모두 닫는 요즘엔 학우들의 복도 흡연은 다른 비흡연 학우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

어느 단대 건물이든 분명히 휴먼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제대로 지켜졌는가. 예컨대 정경대의 경우 우각층 계단 중간마다 분명히 휴먼 구역이 있다. 그러나 휴먼 학우들은 복도에서 버젓히 니코틴을 즐기고 있다. 그 객연 자 옆에는 연신 제재기를 하고 있는 학우도 눈에 띈다.

이것은 마땅히 고쳐져야 할 모습이다. 담배를 끊자는 얘기가 아니다. 다만 한사람의 권리가 휴먼 구역에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양 대령
(사회과학 1)

비흡연자 권리 무시

흡연구역 지켜져야

대학생에게 자유가 참으로 많다. 술, 담배에 이성교제 등...

고교때까지의 억압에 대한 분풀이라도 하듯... 그런데 그것이 때론 문제점이 되기도 한다. 내가 여기에서 문제라고 말하려는 것은 흡연문제이다.

물론 성인 누구에게나 휴먼할 권리는 있다. 그러나 또 누구에게나 담배 연기를 마시지 않을 권리가 있다. 어느 권리를 타인에게 피해가 된다면 철회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학교 어느 단대건물에 가든 복도는 항상 끄적자의 각축장이다. 삼삼오오 창가에 기대어, 심지어 복도를 활보하던 서 흡연한다. 여름에는 복도의 담배연기가 강의실까지 침입(?)한다. 날씨가 쌀쌀해져 창문을 모두 닫는 요즘엔 학우들의 복도 흡연은 다른 비흡연 학우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

어느 단대 건물이든 분명히 휴먼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제대로 지켜졌는가. 예컨대 정경대의 경우 우각층 계단 중간마다 분명히 휴먼 구역이 있다. 그러나 휴먼 학우들은 복도에서 버젓히 니코틴을 즐기고 있다. 그 객연 자 옆에는 연신 제재기를 하고 있는 학우도 눈에 띈다.

이것은 마땅히 고쳐져야 할 모습이다. 담배를 끊자는 얘기가 아니다. 다만 한사람의 권리가 휴먼 구역에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서 영환
(경제통상 1)

검치기 학교행사

효율적 사업운영 필요

대학인에게 진정 필요한 것

은 무엇인가?

학교공부에 매진하여 상아탑을 쌓는 일일까. 아니면 축제를 통하여 자유를 만끽하는 일일까? 나는 두가지 모두 전인교육의 전당인 대학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

학교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바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그래서 학교측에서는 학생들을 위해 시험과 축제, 경회각 콘서트를 실시했다.

여기까지 객체의 행사만으로 본다면 그 취지는 아주 좋다.

하지만 문제는 이 행사들이 모두 연달아 있거나, 겹치는 것이 문제다. 각각 행사의 근원취지와 그 행사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행사의 간격을 적당히 조정하는 학교나 학생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흘린 땀방울의 양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흘린 땀방울만으로는 그 행사가 최고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 땀방울이 학교의 효율적인 사업의 운영과 맞물려 돌아갈 때 그 행사는 최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행사 주최측에서는 항상 학생들의 참여가 부족하다며 학생의 참여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축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 정숙
(외대 영문 1)

독자수필

돌산의 추억

임 지 희
(성악 1)

어릴적 살던 우리집 뒤에는 돌산이라는 낮은 산이 있었다. 아침밥을 먹고나면 약속이라도 한듯 동네아이들은 마을 어귀에 모이고 잠시후 돌산으로 가는 행진이 시작된다.

나와 우리 오빠는 항상 앞장을 서곤했다. 동네 아이들이라 해봤자 나와 오빠를 빼면 앞집 수경이, 옆집 인석이, 마을 어귀에 사는 명주 이렇게 셋 밖에 되지 않았지만, 수십명을 거느린 부대의 지휘관처럼 우리의 어깨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고 표정도 엄숙했다. 일렬로 줄을 맞추어 가끔씩 대장의 '하나! 둘!' 하는 구령이 들리기도 하면 목이 터져라 '셋! 넷!' 하고 답을 하면서 우리의 행진은 계속되었다.

돌산은 큰 바위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을 지나야 숲이 나온다. 바위와 바위사이를 총총거리며 뛰고 가끔씩 그 사이가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면 기암괴석의 도움을 받아야만 건널 수 있었다. 숲에 도착하면 가장은 잔잔한 자유시간을 켜었다. 나와 수경이 명주는 아카시아 나무를 타고 허벅지칼에 돌돌 말아 호주머니 속 미리 준비해둔 쌀을 꺼내 먹곤 했다. 그러면 집에 갈 때쯤 실을 풀면 파마와 갖가지 과일과 야채가 꼬불꼬불하게 나오곤 했다. 조금씩씩 씹어먹는 재미도 있었다. 그렇게 돌산에 다닌 날들이었다. 조금씩씩 씹어먹는 재미도 있었다. 그렇게 돌산에 다닌 날들이었다. 조금씩씩 씹어먹는 재미도 있었다. 그렇게 돌산에 다닌 날들이었다.

그런 날이면 다른 날보다 집에 일찍 들어가곤 했다. 나의 돌산에 대한 기억은 유년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며칠 전 그곳에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난 곧 간 것에 대해 후회하기 시작했다. 차라리 마음속에 행복했던 그때의 기억을 담아두며 그리워했다면 좋았을 것을.....

돌산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자리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다. 내가 살던 마을은 똑같은 모양의 높이가 다른 건물들이 차지하고 있어 내에게는 거부감마저 들게 했다.

처마를 갖고 있던 우리집! 유난히 높아 하늘과 가장 가까웠던 우리집의 장독대! 나의 드넓은 놀이터였던 돌산! 모두 나의 기억속에서만 존재하는 안타까운 그러나 너무나 행복했던 추억들이다.

경희발전기금 출연내역 및 명단

작은정성이 경희의 밝은 미래를 예감합니다.
꿈과 이상이 실현되는 자랑스런 경희만들기에
동참해주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탁자 명단은 접수순입니다.
('97.10.10~10.31)

△박용수(경희여중 교장, 2차분) 1백만원
△(주)영아트개발(대표이사 박정수) 5천만원

▲경희사랑기금통

△조용호(외대 의학과교수, 학생처장, 10차분) 12만5천원
△이정은(이학부 1학년) 3만90원
△김수희(원문정보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졸'95) 3만7천8백70원

독자사진



“가을날의 축제”

파인더

(수원캠퍼스 사진동아리)

열린소리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란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과 얘기를 대학주보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시, 만화, 사진, 수필 등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고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원고료: 200자 원고지 4매 하이텔(ID: khunews) ◇보낼곳: 서울 수원 본사 편집실 천리안(ID: khunews)

朔風

신문에는 진실이 숨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진실이 드러나도 되는 것일까. 이런 이상한 질문은 요즘 90년대에 잘 맞지 않는 것으로 들릴 지 모른다. 90년대란 대중의 시대이고, 검열이 없는 시대이며, 자유분방한 발언이 허용되는 시대이니까. 하지만, 나는 이러한 질문이 요즘에도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80년대 중반까지만 이러한 질문이 유효했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지 모른다. 모든 일간지의 통기사가 비슷한 제목과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고, 광주민중혁명에 관한 내용은 극히 적었으며, 정말 비판적인 기사들의 몸체는 언제나 잘려져 있었으니까. 숨어 있는 진실은 언제나 행간에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언제나 행간을 읽어야 했고, 거기에 만족해야 했다. 정치적 겨울을 견디는 법이었던 지 모른다.

하지만, 요즘은 정치적 봄이라고나 할까. 신문들 검열을 하던 대통령이 검열당하는 시대이고, 동성애 등의 급기 사항들이 신문에 태연히 모습을 비추

표현의 봄—진실의 겨울

는 시대이며, 정치적 비판과 그 비판에 대한 비판도 실릴 수 있는 시대이다. 뭐든지 말할 수 있는 잔치의 시대이다. 그런데, 이러한 봄의 잔치를 신문은 정말 즐기고 있을까. 잔치를 망치고 있지 않는가. 김대중의 비자금 문제를 놓고 보면, 신문들은 철저하게 진실을 숨겨놓는 것 같다.

절대로 진실을 드러내지 않는다. 평생 돈 한 톨 벌지 않고도 대규모 저택에 사는 김대중이 정말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돈이 있었는지를 밝히려는 신문은 하나도 없다. 국민들은 강삼재와 김대중의 말에 속고 신문에 속는다. 신문은 80년대에 받던 검열처럼, 이제는 자기 검열을 한다. 어느 정도까지만 보여주고 정말 중요한 것(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숨긴다. 숨은 행간을 찾으라고 독자들에게 암시한다. 어느 한 신문이라도 속 시원히 진실을 향해 파고드는 모습은 없다.

진실을 숨기는 신문은, 그래서 상투적이다. 신문마다 주시 폭력이 톱기사로 나간 지 3일만에 자살한 여자의 얘기가 나왔다.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할 정도로, 혹은 역시 또 나오는군 할 정도로 신문들은 독자의 예감에 딱딱 맞추어 간다. 신문은 너무 자상하다. 그래서, 신문에 대해 그리 관심을 두지 않는 독자들 해도 신문 앞에서는 너무도 쉽게 전문가가 된다.

그렇다면, 처음 제기한 질문을 다시 한 번 해보자. 신문에는 진실이 숨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진실이 드러나도 되는 것일까.

신문의 의욕을 꺾던 계절은 지나갔다. 신문들은 이제 정신을 차릴 때가 되었다. 90년대에 맞는 새모습을 보여줄 때가 된 것이다. 각 신문들마다 자기 특유의 정신과 그에 따른 방향을 정해 밀고나갈 때이다. 개성적이면서도 전투적일 때다. 행간에서 행으로 진실을 드러내어도 아무도 탓하지 않는다.

(회기동 시인)

세계경영, 다음 세대와의 약속입니다

대우가족

세계는 넓고 기회는 많다
평생동안 한 번밖에 오지 않는다는 기회
하지만 준비하고 꿈을 키워가는 이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
세계를 향해 꿈을 펼쳐가는 대우의 세계경영
대우의 실력을 믿고 함께 만들어 가는
좋은 기회입니다.
대우가 있습니다.